

인터뷰

Monica He

Monica He는 오가논의 미국 및 국제 정책 총괄을 맡고 있다. 바이오 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산업에서 10년 이상 정부 정책과 대관 업무를 이끌며,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 통상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여성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APEC 2025를 통해 바라본 여성건강

#여성건강

#인구위기해법

#국제민관협력

오가논은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공동 핵심과제로 한 주요 대화와 워크숍에 민간 지식 파트너로서 참여하며, 인구 회복력 강화를 위한 논의 속에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인천 송도와 서울에서 다양한 정책 세션이 열렸으며, 글로벌 오가논에서 미국 및 국제 정책을 총괄하는 Monica He가 연사로 나섰다. 그녀는 난임 치료 접근성, 가임력 보존, 성-재생산 건강 투자 강화 등 여성건강 전반의 의제를 글로벌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국제 협력 현장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Monica He와 함께 여성건강을 단순한 보건의료 이슈가 아닌 인구구조,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을 듣고, 국제 무대에서 체감한 변화의 흐름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핵심 의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AI 협력'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은 주제 중 하나가 여성건강이다. 2025 APEC KOREA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과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고,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Economy, HLMHE)'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여성건강 증진'이 포함되며, 아시아-태평양 보건 협력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APEC의 21개 회원 경제체(Member Economies) 중 18개 회원 경제체가 인구 대체율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건강은 단순한 의료 이슈를 넘어 경제 회복력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가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가논에서 미국 및 국제 정책을 총괄하며, 전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여성건강이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가논은 여성건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메시지를 글로벌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놓는 것이 제 역할이며, '여성건강 증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는 세계 각국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오가논이 APEC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의 21개 회원 경제체가 협력하는 중요한 경제 협력 플랫폼입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고, 특히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성-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죠.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어, 여성건강을 둘러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APEC 2025 KOREA
Public-Private Dialogue
Demographic Response & AI Cooperation
APEC 2025 민관대화



APEC 2025에서 인구정책을 다루는 공식 프로그램에 오가논이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초청돼 발표했다.

“
**여성건강을 정책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



● **Q3. 그동안 오가논이 APEC을 통해 이룬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요?**

오가논은 2022년부터 APEC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여성건강을 국제 정책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2022년 태국 APEC에서는 '스마트 패밀리 이니셔티브' 출범을 지원하며, 공공-민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PEC 사무국은 APEC 지역의 저출생, 계획되지 않은 임신, 고령화 등 인구 변화를 탐색하고, 임신-출산-피임-난임 등 재생산 건강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옵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지원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했을 당시 CEO가 APEC 민간부문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세계 정상 등과 교류하며, 전 세계 여성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APEC 지역에서의 여성건강과 인구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페루 APEC에서는 이러한 이전 성과를 토대로 'APEC 여성건강 정책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고**, 여러 APEC 경제체들이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 APEC에서는 인구정책을 다루는 공식 프로그램의 유일한 민간 발표 기업으로 초청받아 인구 어젠다와 여성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APEC 센터(NCAPEC)와 함께 여성건강의 미래와 정책 개발을 주제로 한 'The Future of Fertility Care : Innovation and Policy Development in Women's Health 세션'과 'APEC Smart Families Workshop on Innovative Financing for Women's Health 워크숍'을 개최하며 APEC 내 여성건강 의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가논의 APEC 여정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태국 APEC '스마트 패밀리 이니셔티브' 출범 지원	미국 APEC 정상회의에서 CEO 민간부문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참여	페루 APEC 'APEC 여성건강 정책 대화' 주도	한국 APEC 인구정책을 다루는 공식 프로그램의 유일한 민간 발표 기업으로 초청

APEC이 주목한 여성건강

**미국 APEC 센터
(NCAPEC) 워크숍**

“
**난임 치료의 미래
 :여성건강 혁신과
 정책 개발**
 ”



워크숍에서는 Charles River Associates(CRA)가 발표한 정책백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임 치료 접근성의 국가별 격차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인구 백만 명당 3,630건의 보조생식술(ART)이 이루어지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30건에 불과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는 정책 지원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조명됐다.

한국 사례도 공유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0.78, 2022년 기준)을 기록하며 과거 정책 대응에 20년 이상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시의성이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근 난임 치료 보조금과 의료 접근성 제도가 마련됐고, 특히 서울시의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의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만,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심리사회적 상담 지원이 부족하고, 착상 전 유전검사(PGT) 등 보완 치료 영역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²



**APEC
스마트 패밀리 워크숍**

“
**여성건강을 위한
 혁신적 재정 조달**
 ”

인천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의 계기 워크숍에서 보건-재무-여성 부처와 정부, 개발은행, 민간 전문가들이 여성건강 분야의 재정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난임 치료와 생식 건강 접근성 확대는 삶의 질과 경제 회복력에 중요하지만, 글로벌 재정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일간의 워크숍에서는 젠더 채권, 혼합 금융 등 실제 사례를 검토하고 각국 적용 방안을 모색했으며, 결과는 향후 APEC 혁신적 재정 조달 프레임워크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가논은 지식 파트너로서 성과 기반 모델을 위한 근거 자료와 영향 지표 개발을 지원하며, 여성건강과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

“
결국 한국의 인구 문제도 '출산을 늘리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Q4. 올해 한국에서 열린 APEC에서는 여성 건강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졌고, 오가논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2025년 한국 APEC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이 급격히 맞물리는 시점에 열렸습니다. 이는 **여성건강을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가논은 보건실무그룹, 공공-민간 대화, 혁신적 재원 조달 논의 등 다양한 세션에 참여해 '여성건강은 인구 전략의 기초이며, 기술 변화의 시대에도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여성건강을 정책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Q5. 그렇다면 초저출생·초고령화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구조적 특징이나 정책 기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성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삶을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으려면 **건강 정보와 더불어 피임, 가족계획을 위한 정보도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가논은 각국 정부와 협력하며 피임 접근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Her Promise Access Initiative'와 'Her Plan is Her Power'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7,600만 건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인구 문제도 '출산을 늘리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출산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6. 앞으로 APEC과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오가논이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오가논은 앞으로도 정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여성건강 중심의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접근성 개선, 피임 선택권, 재생산 건강 교육 등의 구체적인 개입을 시스템 변화와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건강을 복지 이슈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계획되지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오가논의 여성건강 프로젝트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여성건강을 향상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의 선택권과 가능성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완성됩니다. 오가논은 그런 변화의 중심에서, 모든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캠페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만드는 오랫동안 곁에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APEC 스마트 패밀리 워크숍 '여성건강을 위한 혁신적 재정 조달'에서는 여성건강 분야의 재정 격차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